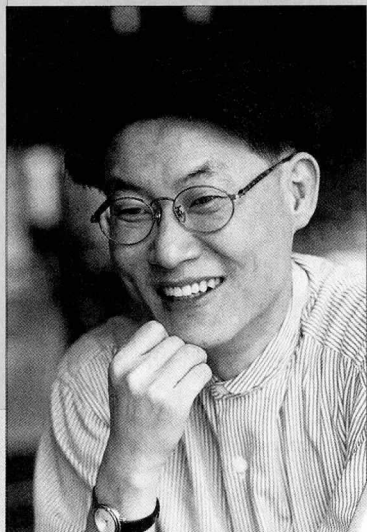


## 단아한 기품으로 노래한 옛것에의 향수

《늦게 온 소포》 펴낸 고두현씨



고두현씨

민음사/B6변형/110면/5500원

고두현 시인(37, 한국경제신문 문화부 기자)의 첫시집이 나왔다. 등단 이래 7년만이다. 독자들에게 그래서 《늦게 온 소포》(민음사)라는 제목이 더욱 반갑다. 첫머리에 인삿말 정도는 있을 법도 한데, 그는 이번 시집에 '자서' '후기' '해설' 같은 것을 덧붙이지 않았다. 하얀 양장에 싸인 71편의 작품들은 그런 시인의 '함구'로 인해 더욱 예사롭지 않게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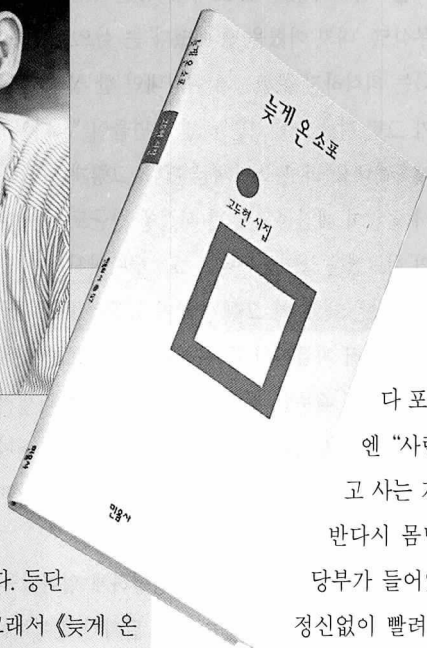
### 바다내음 물씬 풍기는 시집

“신문사 생활에 쫓기다 보니 여유가 없었지만 시쓰는 일을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니다. 굳이 시집을 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 삶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데 시집은 무슨 하는 자괴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시인의 고향은 남해 금산이다. 중학교를 마칠 때까지 남해가 내려다보이는 절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작품 속에서 그가 말문을 열 때면 언제나 짝조름한 바다내음이 난다.

“밤에 온 소포를 받고 문 닫지 못한다. / 서투른 글씨로 동여맨 곁집의 매듭마다 / 주름진 손마디 한데 묶여 도착한 / 어머니 겨울 안부, 남쪽 섬 먼 길을 / 해풍도 마르지 않고 바삐 왔구나.” (《늦게 온 소포》)

유자를 넣어 보낸 어머니의 소포는 내용물보



다 포장이 더 두텁다. 그 속엔 “사람이 다 지 아래를 보고 사는 거라. 어렵더라도 참고 반다시 몸만 성키 추스리라”는 당부가 들어있다. 낮선 삶 속으로 정신없이 빨려 들어가던 각박한 하루의 끝이, 그 몇 마디에 “접었다 펼쳤다 밤새 / 남향의 문”을 단지 못한다.

“열린 문밖으로 눈이 내리고 무릎 위엔 소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 있었던 일을 그대로 옮겼더니 시 한편이 완성되더라고요. <늦게 온 소포>는 어머니가 써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머니 이야기에서 시작한 시집엔 이어서 온갖 옛것들이 다 등장한다. 고향 금산의 식당, 절, 사람들의 풍경 등 시 전반에 흐르는 이런 ‘오래된 감수성’은 얼핏 낯설어 보인다. 거기다 고대를 향한 열렬한 그리움을 ‘유배시편’과 ‘발해시편’에 담았다. 시인은 아예 과거를 향해 몸을 돌리고 있다.

“과거를 기억하는 현실이 되자는 겁니다. 전부 앞만 보고 달려가는데, 누군가 한 사람은 멈춰 서서 뒤를 봐야 한다는 거죠. 성찰이 끝나기 전에는 선불리 앞으로 나가자 말자는 스스로의 다짐도 저의 관심을 자꾸 과거의 삶 속에 고정시킵니다.”

‘유배시편’은 서포 김만중을 화자로 한 연작시다. 시인의 고향 앞바다에서 보이는 ‘노도’라는 섬은 김만중이 유배생활을 했던 곳이다. 유복

“혼자 있을 때는 멍한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느리고 나태하고 권태로울 정도로 나를 해체합니다. 그리고 나면 딱딱한 머리와 손과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뭔가를 찾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시가 잘돼요. 만들지 않아도 술술 그냥 나오는 거죠.”

자로 태어난 김만중은 유배지에서 오히려 어머니의 안부를 걱정했다. 또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를 애타게 그리워했다. 직접 서포가 돼 그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는 시편들을 읽다보면 시인의 개인사와 흡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일까. 내리는 눈을 보고 “조각배 위에서 태어나 유배의 섬에 와 갇힌 / 나를 보러 / 아버님이 이렇게 오시는가.” 하는 탄식은 유난히 절절하다.

‘발해시편’은 원래 별도의 시집으로 묶으려 했으나 그만뒀다. 아직 발해의 ‘존재’를 완전히 느끼지 못했던 생각이 들어서다. 그래도 시에 등장하는 유적에서, 옛 선인들의 삶과 애환을 찾아내는 시인의 감수성은 충분히 느껴진다.

### 잊혀진 토박이말과 운을 살려

그의 시엔 잊혀져 가는 우리말과 운율이 살아있다. <직녀>는 일부러 시조형식으로 썼다.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의식에 배어 자연스럽게 묻어나온다. 이미 지나온 시간의 사람들을 만나고(<말씀>), 곰방대 같은 굴뚝 연기를 떠올리고(<그리운 굴뚝>), 호수 앞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일들이 “해지는 쪽으로 / 손등 가리는 나의 처마”처럼 단정하게 포착된다.

“혼자 있을 때는 멍한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느리고 나태하고 권태로울 정도로 나를 해체합니다. 그리고 나면 딱딱한 머리와 손과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시가 잘돼요. 만들지 않아도 술술 그냥 나오는 거죠.” - 강성민 기자